

### 반기문 총장 英 케임브리지대서 명예박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케임브리지대는 “국제사회가 빈곤과 굶주림, 제도사이드(인종차별),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반 총장의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며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배경을 밝혔다.

케임브리지대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서 일각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폭력보다는 외교를 통한 분쟁 해결을 한결같이 추구해온 반 총장의 접근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일년에 8명을 넘지 않는 케임브리지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특정 분야 또는 전반에 걸쳐 각별한 공로를 쌓은 사람에게만 부여된다. 한국인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받은 바 있다.

연습뉴스

### 5월 독일서 간호사 파독 50년 기념 행사

간호사 파독 50년을 기리는 행사가 오는 5월 독일에서 열린다.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윤영자·사진)는 훌륭한 개척정신으로 전 세계에 사랑을 실천한 한인 간호사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축하는 행사를 오는 5월18일부터 4일간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에센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광주일보는 올 초부터 고흥 출신 재독 캠퍼리스트 박경란씨의 ‘파독 50년 호남 출신 간호사 인생 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다. 10번째 독일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는 박 씨는 지난해 파독 간호사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 ‘현자 필라의 인생 가방’ 제작에도 참여했다. 이 작품은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으로 오는 4월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 대학원 배효정 광전자학회 논문 최우수

전남대 대학원 신화학소재공학과 배효정(박사과정 수료) 학생이 최근 열린 제2회 LED·반도체조명학회·한국광전자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논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배효정 학생은 최근 이를 동안 전남대 공과대학 코스모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GaN(질화갈륨) 기반의 광전극 제작 및 특성 평가’라는 논문을 ‘센서 & 에너지’ 분과에 구두 발표해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랑의 쌀 전달



광주장애인총연합회(회장 서유규)는 3일 북구 동림동 소재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설 명절을 맞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 장애인협회 및 영세중장장애인 등에 쌀 10kg짜리 600포를 전달하는 등 “광주지역 중장장애인 백미 나눔 행사”를 가졌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제공

# “안심하고 자녀 맡기게 위생관리 체계화 도움 됐으면”

## 전국 최초 ‘어린이급식 위생지킴이’ 앱 개발 동시대 노희경 교수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급식시설 위생·안전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번에 개발한 앱(APP)이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겠어요.”

노희경(51)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어린이급식 위생안전지킴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노 교수는 동신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제작한 ‘어린이급식 위생안전지킴이’ 앱은 구글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 전남도,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등 4곳에 일하는 직원들이 노 교수와 호흡을 맞췄다.

노 교수는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들이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워 한다”며 “안내책자는 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앱 형태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식단과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학교에 비해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않거나 조리사가 자주 바뀌는 곳도 많다. 이들에 대한 교육도 현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요리법·조리실 사고예방 등 담겨

어디서나 볼수 있고 비용 절감

구글스토어 통해 무료로 배포

앱이 조리사 등 현장 실무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어린이급식 위생 안전지킴이’는 조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방과 놓지기 쉬운 식품관련법령, 위생안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위생안전자가 진단, 건강진단 발급일 확인 등 8개 카테고리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조리시설에 딸린 배수관 청소방법이나, 식품관리를 보관하는 냉장고 관리, 유



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법적급도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과일이나 야채를 물로 씻은 뒤 조리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생채소류는 소독액 세척이 필요하지만 다들 모르세요. 앱을 실행시

킨 뒤 그대로 따라하면 돼 어렵지 않게 위생안전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앱에는 아이들의 균형있는 식단을 고려한 요리법도 소개돼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좋은 정보다. 전문 영양사들이 선정하고 소개한 정보라 믿음이 깊다.

여기에 하루종일 서있는 등 근골격계에 잦은 통증을 느끼는 조리사들을 위한 스트레칭과 체조 방법도 있다. 체조와 스트레칭법은 노 교수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모텔’로 나섰다.

이들은 매주 회의를 거쳐 앱 제작을 위한 콘텐츠 구성안을 만들었다. 제작기간만 무려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조리법과 청소법 등 앱에 들어가는 모든 사진도 본인들이 직접 찍었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곧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의 급식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 말고도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노희경 교수는 “어플 사용이 활성화되면 조리실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 위생·영양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윤태호 작가 ‘미생체’ 맘껏 사용하세요”

카카오, 저작권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카카오는 웹툰 ‘미생’의 윤태호(48·사진) 작가, 국내 폰트 전문 업체 산돌컴퓨터(www.sandollcloud.com)와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출신 만화가 윤태호 작가의 미생체는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영리·비영리 활동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폰트서비스 사이트인 산돌그룹(www.sandollcloud.com)과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서체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는 영세 작가들에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체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카카오스토리펀딩을 통해 일반 누리꾼이 미생체 개발을 후원하고 제작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서체 개발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카카오가 지원했다.

윤태호 작가는 “후배 작가들은 물론 어느 분야에서든 손글씨체가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미생체를 알리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다음웹툰 페이지(http://webto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on.daum.net/event/misaefont)에서 ‘나만의 명문장을 써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만의 명문을 등록하면 글꼴을 미생체로 변환해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가장 감동적인 글꼴을 써준 5명에게는 윤태호 작가의 전필 사인이 담긴 미생 시종 2당행본을 증정한다.

윤 작가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허영만, 조운학 문하로 만화계에 입문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생활 어려운 지역 대학생 위해 써 달라”

해양도시가스, 장학금 3200만원 광주공동모금회 쾌척

(주)해양도시가스(대표 김명환·왼쪽)가 4일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32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장학금은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재학생 30여명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주)해양도시가스는 지난해에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6400만원을 기탁해 51명을 지

원한 바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공동모금회에 1억5000만원 상당을 후원해오고 있다.

김명환 대표는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해양도시가스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예술무대 펠 봉사자 모집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2016년 지하철 예술무대에서 활동할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역자를 공개 모집한다.

노래, 연주, 댄스, 국악 등 장르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음향장비 등 공역지원과 함께 공사 주관 대외 행사 참여 기회 및 자원봉사시간 인증 등이 제

공된다.

신청자는 공사의 ‘문화지하철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역자로 최종 선정된다.

문의 공사 홈페이지(http://www.gwangjusunway.co.kr), 문화홍보팀(062-604-8104·refresh0816@daum.net)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나광오·노윤순씨 장남 현군 최옥수(광주CBS문화사업국장)·김애란씨 차녀 지아양=14일(일) 낮 12시40분 광주시 서구 동성동 라페스타에딩홀 2층 열루체홀.

▲노영복(광양보건대학교 총장)씨 장남 상호근(조선대병원) 이근성씨 장녀 해인양(광양보건대 교수)=16일(화)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동창회

▲목포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회장 최정열)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종친회

▲하동정씨 장령공파 종회(회장 정이현) 성묘 및 신년 하례회=13일(토) 오전 11시 영암군 신복면 모산리 영사재 문의 010-8649-5011.

▲전주이씨 대중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수) 정년회(회장 이철환) 이

화례회의=16일(화) 오후 7시 도지연 회의실 3층 062-225-5636.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부음

▲정일용씨 별세 재품(교보생명부장)·형제(자영업)·재간(광주일보 담당주재지)·재간(우리네어린이집원장)씨 부친상 정경옥(담양군청 감사계장)씨 시부상=발인 6일(토) 담양 동산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1-383-0000.

**謹 상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b>201호 故임순자 님(여/89세)</b> 子/子婦: 김효숙/안필순, 남식/구자숙, 정식/이영숙, 손식/최준희 女/婿: 김갑순/정해지, 애숙/윤경수 • 발 인: 2월 5일 • 장 지: 경진 군동선영 • 연락처: 227-4381	<b>301호 故김경란 님(여/77세)</b> 子/子婦: 정경호/김미자, 경진/양선화 女/婿: 정경호/김호사, 경진/주병환 • 발 인: 2월 5일 • 장 지: 영학공원 •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정양립 님(여/89세)</b> 子/子婦: 이갑주/부호, 두식/두원 孫: 부호 • 발 인: 2월 6일 • 장 지: 담양천주교묘지 •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오수정 님(여/34세)</b> 兄弟: 오병준/수연 • 발 인: 2월 5일 • 장 지: 영학공원 • 연락처: 227-4314
<b>101호 故고재욱 님(남/64세)</b> 子: 고준호 女/婿: 고경아/이건욱 • 발 인: 2월 5일 • 장 지: 문민정사 •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이옥자 님(여/84세)</b> 子/子婦: 신현옥/김순영, 현성/안남희, 현호/라순정 女/婿: 신현영/양병문 • 발 인: 2월 5일 • 장 지: 곡성읍선영 • 연락처: 227-4000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5일(음 12월 27일 丁巳)

<b>子</b> 48년생 시신 집중을 받을 수도 있다. 60년생 참으로 어중간하여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다. 72년생 조금의 편익을 도 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84년생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6, 46	<b>午</b> 42년생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54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66년생 상대의 말에 숨은 뜻까지 잘 파악해야만 하느니라. 78년생 조건을 날날이 살펴본다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1, 75
<b>丑</b> 49년생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61년생 가제는 게 편익을 잊지 말라. 73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8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행운의 숫자 : 33, 82	<b>未</b> 43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55년생 영향력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리라. 67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때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79년생 가만히 기다리라고 있으면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5, 88
<b>寅</b> 50년생 바로 말하지 말고 빙 둘러서 표현하는 것도 수준 높은 처세법이라 할만하다. 62년생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74년생 발언하기가 꼭 속삭여 줄 것이다. 86년생 행운의 빛이 비추어 오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71	<b>申</b> 44년생 여단수족의 환경에 처한다. 56년생 특질을 잘 파악한다면 행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68년생 급히 손질해야 할 부분이 보이니 지체 없이 조치하라. 80년생 잡다함을 정리하지 못하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8, 40
<b>卯</b> 51년생 불완전한 부분이 보이거든 충분히 보완해 줘야 하겠다. 63년생 연력이 두절되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올 수다. 75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처지이다. 87년생 여간 힘들지 않겠다. 행운의 숫자 : 14, 91	<b>酉</b> 45년생 과거의 사정에 기반한 인식으로는 작으로 유망하기 쉽다. 57년생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69년생 선불리 숙단하면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81년생 경중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96
<b>辰</b> 40년생 현상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52년생 진행 중인 것에만 신경 쓸이 집중력을 높인다. 64년생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76년생 구름에 두어야 한다. 88년생 바로 잡아야 후환을 예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5, 26	<b>戌</b> 46년생 마지막 난관일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58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대응력이 약화 되리라. 70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행해야 할 때다. 82년생 발 딛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81, 94
<b>巳</b> 41년생 성의껏 협조하는 것이 맞다. 53년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상책이다. 65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77년생 금상첨화의 기쁨이여라. 89년생 차이가 분명하다. 행운의 숫자 : 93, 07	<b>亥</b> 47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중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9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71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3년생 외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둔중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95,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